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경제적 행복 추이와 시사점  
- 공무원의 행복감 급락

발행인 : 하 태 형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02-2072-62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경제적 행복 추이와 시사점  
- 공무원의 행복감 급락

Executive Summary

1. 경제적 행복 추이와 특징 .....	1
2. 경제현안 관련 조사 결과 .....	9
3. 시사점 .....	13
<별첨>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개요 및 소개 .....	15
【HRI 경제 통계】 .....	19

○ 경제적 행복지수는 1%대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수출 호조 등 지표경기의 지속적인 회복을 반영하여, 6개월 전보다 3.0p 상승한 43.6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지난 6월 조사된 2014년 상반기(14회) 경제적 행복지수는 국내 경제지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반영하여 전기보다 3.0p 상승하여 43.6으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하락하여 직장인과의 격차가 0.4p로 좁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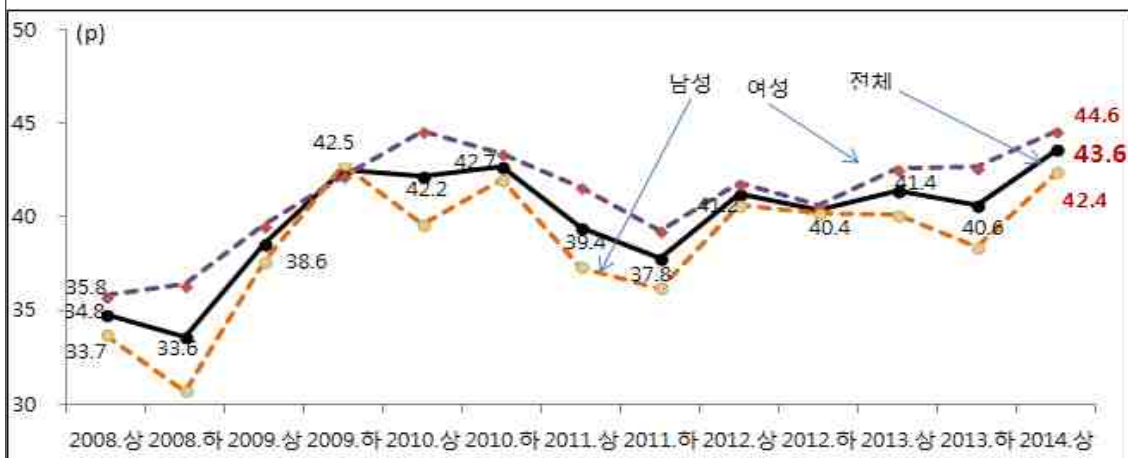
- 세월호 사태 이후의 관피아 논란과 그에 따른 사기 저하로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하락하였고, 직장인은 상승하여 둘 간의 격차가 거의 없어짐  
 ·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지수(47.7)는 전문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지만, 공무원은 -7.9p 하락하고, 직장인은 6.1p 상승하여 둘 간의 격차가 0.4p에 불과

○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크게 하락하여 가장 낮은 상태임

-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36.7로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전기대비 -3.4p 하락하여 하락폭이 가장 큼  
 ·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대로 전기대비 6.3p 상승한 48.8을 기록

○ 소득수준별 경제적 행복지수 격차가 전기대비 더 확대됨

- 소득·자산별로는 고소득·고액자산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평균보다 크게 높음  
 · 연간소득 4천만 원 이상 中高 소득층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50이상으로 전체 평균(43.6)보다 크게 높은 수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행복감 격차가 전기대비 더 벌어짐.  
 · 자산별로도 고액자산가일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은 경향이 더욱 뚜렷해짐



- **학력별** :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평균보다 낮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도 높은 경향이 지속된 가운데, 중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더 하락하여, 학력간 행복지수 격차가 더 벌어짐
- **혼인상태별** :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경제적 행복지수가 상승했고 기혼자와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 격차는 감소함
  -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2.7p 상승하여 46.0으로 가장 높았고, 기혼자도 3.7p 상승하여 43.5를 기록함. 이에 따라, 둘 간의 격차는 다소 감소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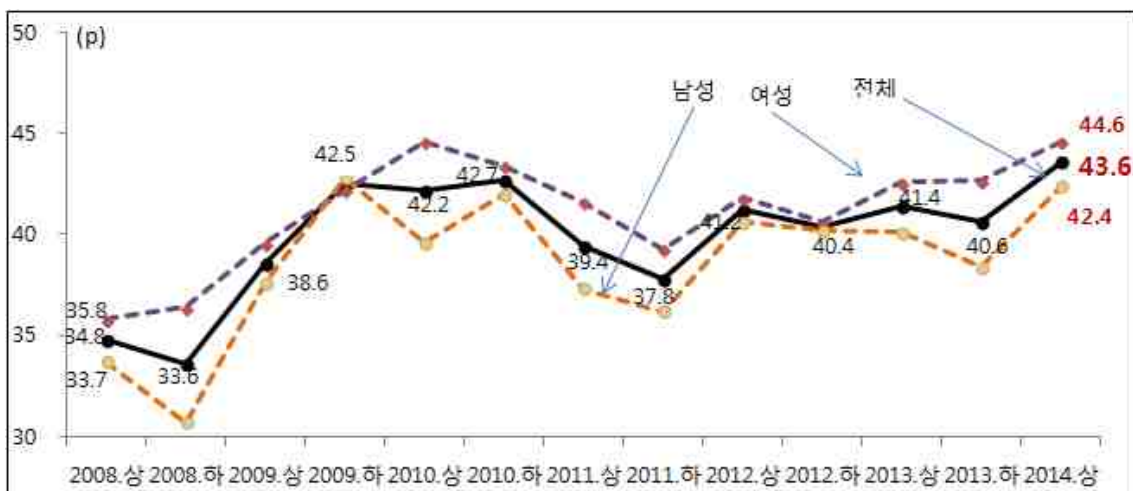
### ○ 기획조사 결과

- 2014년 6월 현재 우리 국민의 87.1%는 일자리 불안, 가계빚 증가 등으로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1년 전의 91.1%에 비해서는 개선된 수치임
  - 전체 응답자의 87.1%는 경기 회복감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단지 12.9%만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고 있다고 조사됨.
  - 일자리 불안(35.3%), 가계빚 증가(28.8%), 소득감소(18.6%), 부동산시장 침체(14.5%) 등이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됨
- 가구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자녀교육비 부담(2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전체 응답자의 25.1%가 '자녀 교육비 부담'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고 응답했고, '가계 빚 부담'은 18.6%, '소득 감소'는 18.5%였음. 이어서, '노후준비 부족' 15.1%, '일자리 불안' 14.2%, '전월세 상승' 6.2% 등으로 조사됨
- LTV, DTI 등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다'는 응답은 32.7%였으며, 60.0%는 '별 영향 없을 것이다', 7.4%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
  - 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긍정적 답변(32.7%)은 '자영업자'(44.0%)와 소득 '1억원 이상'(71.8%) 고소득자, 그리고 고액 자산가 그룹에서 높게 나타남
- 현재 1,020원 정도인 원달러 환율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23.1%에 불과했고,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응답이 55.2%로 과반을 넘었음
-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경제팀이 가장 중점을 뒀어야 하는 과제는 '내수 활성화'(33.1%)였으며, '소득 분배'(29.3%)라는 응답도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규제 개혁'(10.8%)과 '환율 안정'(4.3%)에 대한 응답률은 높지 않았음

## 1. 경제적 행복<sup>1)</sup> 추이와 특징

- (종합평가) 경제적 행복지수는 1%대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수출 호조 등 지표경기의 지속적인 회복을 반영하여, 지난 조사(2013년 12월)보다 3.0p 상승한 43.6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2013년 하반기(13회) 조사에서 40.6으로 소폭 하락했던 경제적 행복지수는 2014년 상반기(14회) 조사에서는 국내 경제지표의 완만한 회복을 반영하여 전기보다 3.0p 상승
  - 2014년 상반기의 물가 안정,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경제지표의 지속적인 개선과 소비심리 회복을 반영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는 상승으로 반전했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남녀별로 보면, 여성의 행복지수는 44.6으로 전기대비 1.9p 상승했고, 남성은 전기대비 4.0p 상승한 42.4를 기록. 남녀 간 경제적 행복지수의 격차는 2.2p로 13회의 4.3p보다 축소됨
- 2014년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주는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지수는 124.8로 전기대비(13회 조사) 1.4p 하락함. 이는 2014년 하반기 경제 상황이 2014년 상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을 보여줌

<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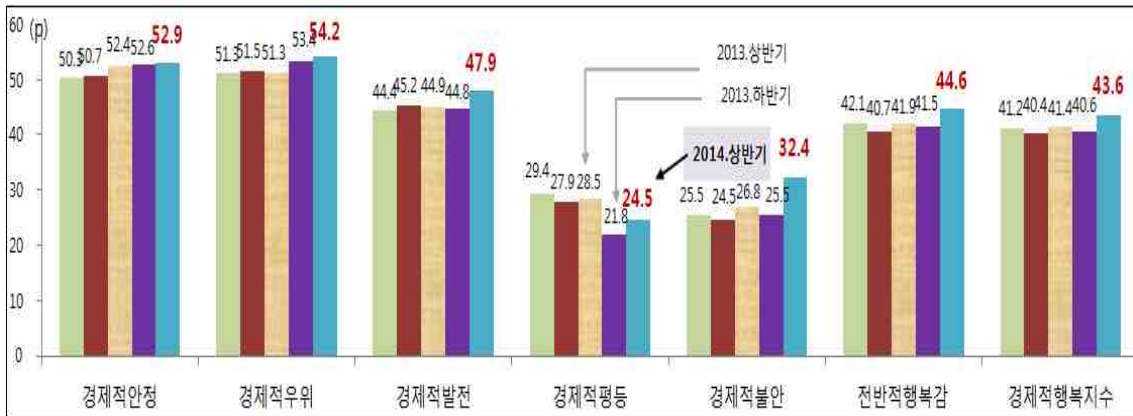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1) 경제적 행복지수의 조사 개요, 정의, 구성요소, 계산 방식 등 자세한 설명은 별첨 자료 참조.

- (항목별) 6개 구성요소 모두 상승했는데, 그중에서도 '경제적 불안' 항목의 개선이 가장 컸으며, '전반적 행복감'과 '경제적 발전' 항목도 많이 개선됨
-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우위 지수는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경제적 발전과 전반적 행복감, 경제적 불안 등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각 구성요소들 중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은 0.3p, 경제적 우위는 0.8p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경제적 발전은 3.1p, 전반적 행복감은 3.1p, 경제적 불안은 6.9p 상승하는 등 비교적 크게 개선됨

<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 비교 >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2014년 하반기에 대한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124.8로서 6개월 전에 비해 소폭(1.4p) 하락
- 2014년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기대감은 2014년 상반기에 비해 소폭 하락
- 미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지수는 1.4p 하락한 124.8을 기록하면서 2014년 하반기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상황은 2014년 상반기와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 추이 >

	2009. 하반기	2010. 상반기	2011. 상반기	2011. 하반기	2012. 상반기	2012. 하반기	2013. 상반기	2013. 하반기	2014. 상반기	2014. 하반기
남 성	139.8	142.8	140.6	122.0	114.8	115.6	126.0	122.0	120.8	118.8
여 성	148.2	149.6	153.8	137.4	135.8	126.2	131.2	129.6	131.6	130.4
전 체	144.2	146.4	147.6	129.8	125.6	121.0	128.6	125.8	126.2	1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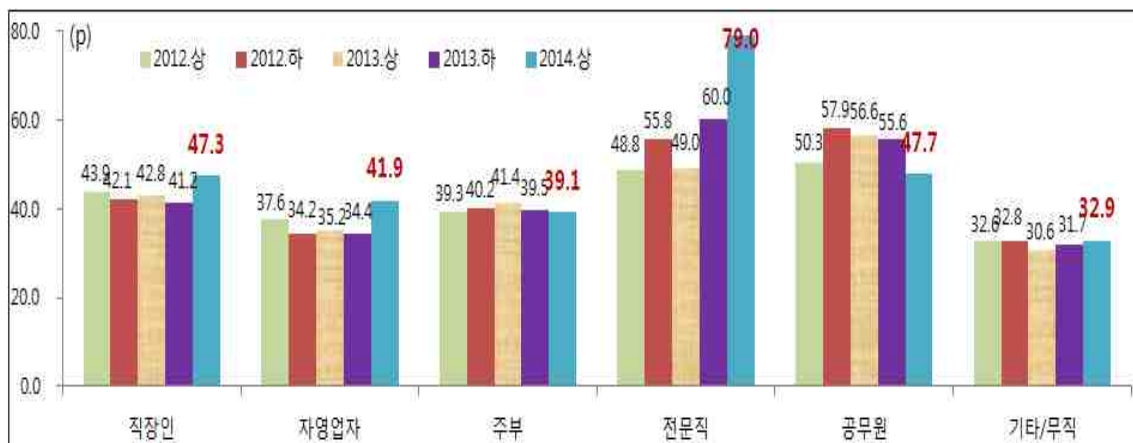
2)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지수는 200점 만점으로, 100점을 넘으면 낙관적 예측이 비관적 예측보다 많음을 의미

- (직업별)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이에 따라 공무원과 직장인의 행복감이 비슷해짐
-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지수(47.7)는 전문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지만, 공무원은 -7.9p 하락하고, 직장인은 6.1p 상승하여 둘 간의 격차가 0.4p에 불과
  - 총14회의 조사에서 '공무원'은 1위 또는 2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 행복감이 '직장인'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인'과 비슷해졌는데, 세월호 사태 이후의 '관피아' 논란과 그로 인한 '사기 저하'가 반영된 듯
  - '주부'의 경우 -0.4p 하락하여 경제적 행복감이 6개월 전과 별 차이가 없음
-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 전체적인 경제적 행복지수 개선에 크게 기여함
  -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적 행복지수가 7.5p 상승하여 크게 개선되었으며, 샘플 수가 가장 많은 '직장인'의 경우에도 6.1p 상승함

< 직업별 경제적 행복지수 >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기타/무직
경제적 안정	57.8	46.4	49.4	90.0	68.3	34.5
경제적 우위	57.3	51.7	50.8	70.0	56.6	48.2
경제적 발전	59.0	43.4	34.3	90.0	60.9	20.2
경제적 평등	25.8	24.8	21.1	20.0	25.4	25.0
경제적 불안	32.9	31.1	29.5	70.0	35.3	34.5
전반적 행복감	48.0	44.3	40.9	90.0	45.6	33.3
경제적행복지수	47.3 (6.1)	41.9 (7.5)	39.1 (-0.4)	79.0 (19)	47.7 (-7.9)	32.9 (1.2)

주: 괄호 ( ) 안의 숫자는 전기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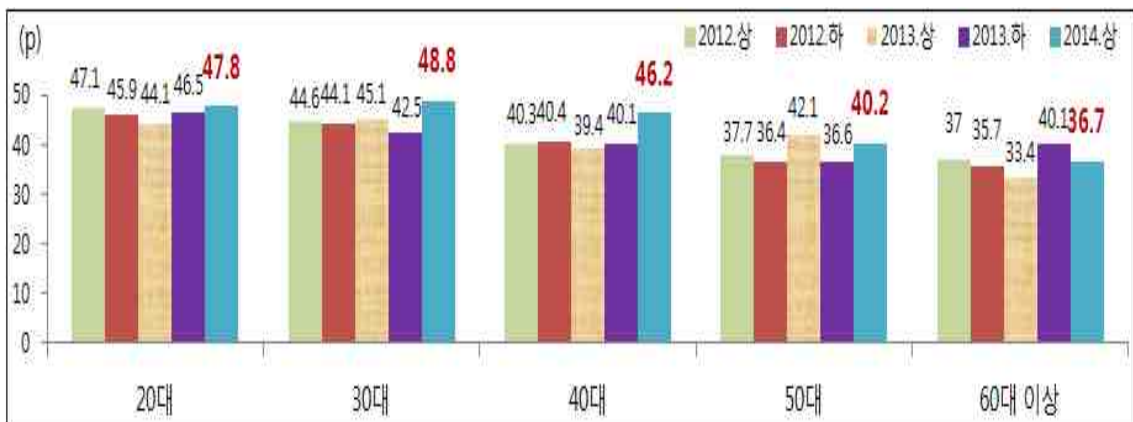


- (연령별) 60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떨어지고, 나이가 20-30대 젊을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추세가 다시 확인됨
-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36.7로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전기대비 -3.4p 하락하여 하락폭이 가장 큼
  -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30대로 전기대비 6.3p 상승한 48.8을 기록했으며, 20대는 1.8p 상승한 47.8을 기록하여 30대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
  - 경제적 행복감이 중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40대와 50대는 이번에도 각각 46.2와 40.2를 기록하면서 3위와 4위 그룹을 형성함.
  - 경제적 행복감이 항상 낮은 편에 속했던 '60세 이상 고령층'은 이번에도 전기대비 -3.4p 하락하여 36.7을 기록하면서 최하위 그룹을 형성함
-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적 행복감' 개선을 위한 지원이 시급함
  - 기초연금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노후준비 부족과 그에 따른 노후불안 등으로 낮은 경제적 행복감을 드러냄

<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 안정	53.8	60.5	56.7	50.8	41.1
경제적 우수	54.6	58.8	56.1	52.6	48.5
경제적 발전	58.6	64.3	56.3	40.5	22.7
경제적 평등	26.0	24.2	24.0	22.0	28.6
경제적 불안	39.0	33.9	28.2	30.8	35.2
전반적 행복감	49.2	49.3	47.9	41.0	37.8
경제적 행복지수	47.8	48.8	46.2	40.2	36.7
	(1.3)	(6.3)	(6.1)	(3.6)	(-3.4)

주: 괄호 ( ) 안의 숫자는 전기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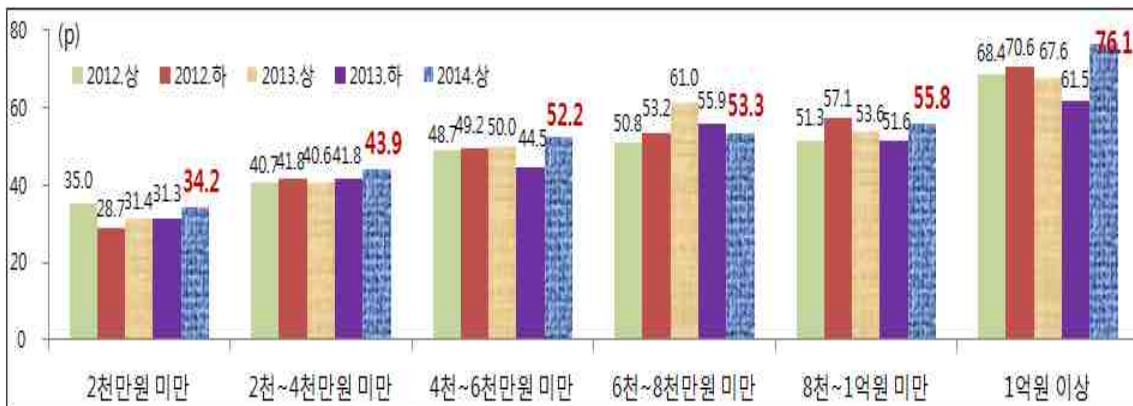


- (소득별)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며,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행복지수 격차가 전기대비 더 벌어짐
- 연간소득 4천만 원 이상 中高 소득층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50이상으로 전체 평균(43.6)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
  - 소득수준별로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계층은 '소득1억원 이상'으로 76.1을 기록했으며,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소득2천만원 미만'으로 34.2를 기록함. 둘 간의 경제적 행복지수 격차는 41.9p로 2배 이상에 달함
  - 경제적 행복지수는 '소득 6천~8천만원'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기대비 상승하였음
-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경제적 행복지수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소득에 따른 '경제적 행복지수'의 격차가 더 벌어짐
  -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행복지수의 상승폭이 더 커서, 소득에 따른 '경제적 행복감'의 격차가 6개월전에 비해 더 벌어졌음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

	2천만원 미만	2천~4천만원미만	4천~6천만원미만	6천~8천만원미만	8천~1억원미만	1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36.0	54.9	68.8	71.1	72.0	87.4
경제적 우위	41.3	54.7	67.4	68.3	68.3	89.4
경제적 발전	30.9	52.9	57.0	70.3	68.1	70.6
경제적 평등	26.1	23.0	27.8	18.9	20.4	27.3
경제적 불안	28.2	31.2	39.5	31.9	35.8	62.1
전반적 행복감	35.7	44.4	52.3	54.4	58.7	84.9
경제적 행복지수	34.2 (2.9)	43.9 (2.1)	52.2 (7.7)	53.3 (-2.6)	55.8 (4.2)	76.1 (14.6)

주: 괄호 ( ) 안의 숫자는 전기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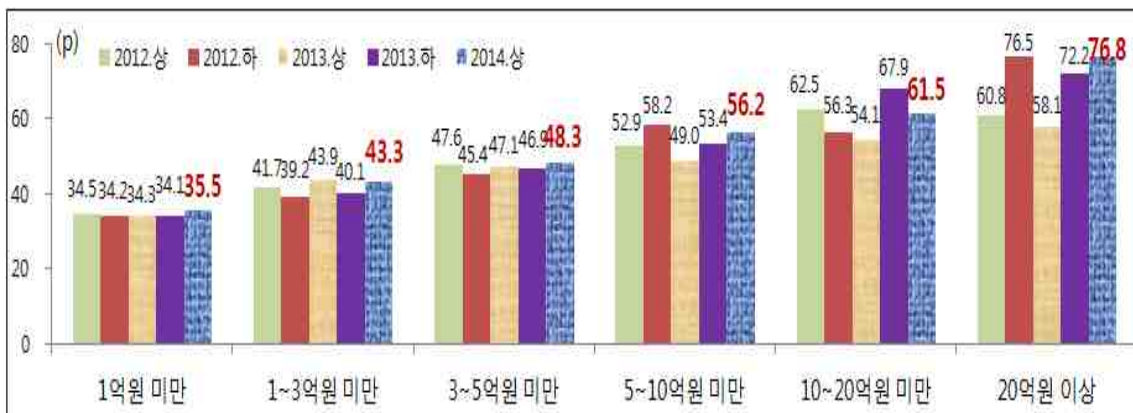


- (자산별)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며, 고액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
  -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고, 특히 20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
    - 경제적 행복지수는 자산이 많을수록 높는데 금번 조사에서도 그 경향이 다시 한번 드러났으며, 20억원 이상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76.8로 가장 높았고 전기대비 상승폭도 4.6p로 가장 컸음
    - 자산 1억원 미만 계층과 자산 20억원 이상 계층의 경제적 행복지수 격차는 41.3p로서 2배 이상을 기록
  - 자산 5억 원 이상 계층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모두 50 이상을 기록하여, 전체 평균(43.6)보다 크게 높았음
    - 소득 기준으로 4천만원 이상 그룹이 '경제적 행복지수' 50을 넘겼는데, 자산 기준으로는 5억원 이상 그룹이 경제적 행복지수 50을 넘겼음

<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

	1억원미만	1~3억원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미만	10~20억원미만	20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42.7	52.5	61	64.2	80.2	87.8
경제적 우위	42.2	53.5	65.1	71.5	82.7	92.9
경제적 발전	40.2	47.3	56.9	55	66.7	70
경제적 평등	23.7	27	20.6	22.3	17.9	38.6
경제적 불안	28.6	31.6	32.7	41.2	41.4	50.1
전반적 행복감	35.4	44.2	49.3	61.5	65.3	85.8
경제적행복지수	35.5 (1.4)	43.3 (3.2)	48.3 (1.4)	56.2 (2.8)	61.5 (-6.4)	76.8 (4.6)

주: 괄호 ( ) 안의 숫자는 전기대비 증감



○ (학력별)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평균(43.6)보다 낮았음

-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도 높았음

- 대학원졸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2.1p 상승한 52.9로 가장 높았고, 대졸 학력자도 4.4p 상승하여 46.7로서 평균(43.6)보다 높았음
- 반면, 고졸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4.8p 상승한 40.8을 기록하여 전체 평균(43.6)에 비해 낮았음
- 중졸 이하의 경우에는 항상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전기대비 -6.2p 하락하여 가장 낮은 24.3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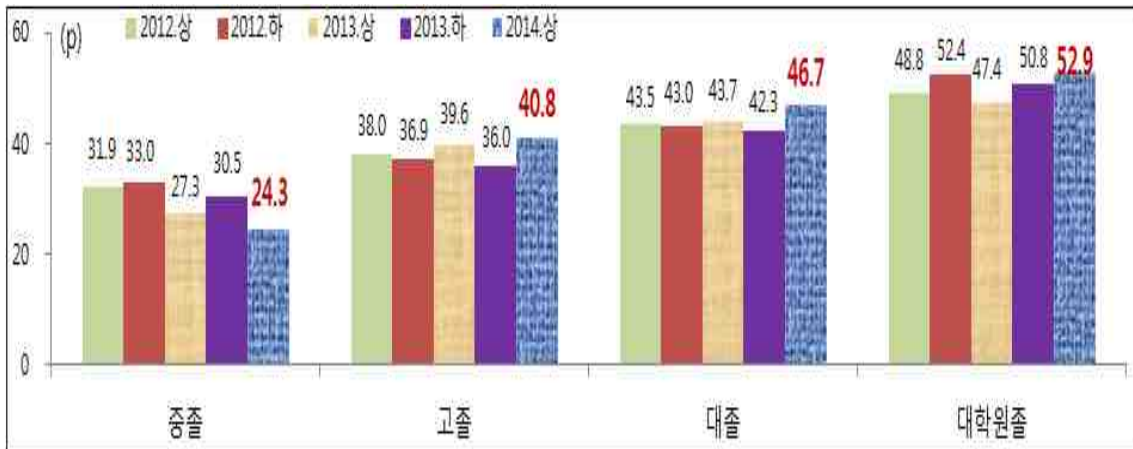
- 학력에 따른 경제적 행복지수의 격차가 더 벌어짐

- 학력에 따른 경제적 행복지수의 격차가 6개월 전에는 20.3p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8.6p로 더 크게 벌어짐

<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경제적 안정	25	46.2	58.2	71
경제적 우위	33	49.7	57.9	68.7
경제적 발전	16.9	39.8	55.1	59.3
경제적 평등	24.9	26	24.2	20
경제적 불안	29.4	29.3	33.5	39.9
전반적 행복감	22.8	43.5	47.3	53.9
경제적 행복지수	24.3 (-6.2)	40.8 (4.8)	46.7 (4.4)	52.9 (2.1)

주: 괄호 ( ) 안의 숫자는 전기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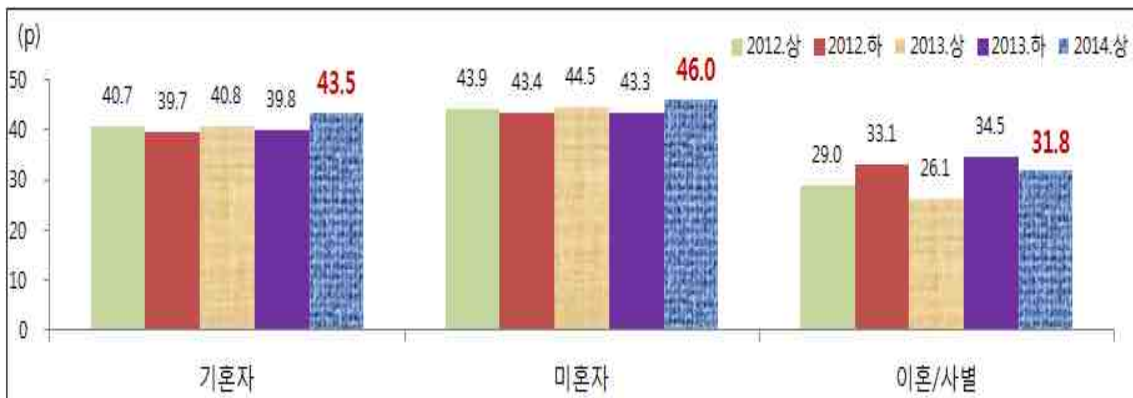
○ (혼인 상태별) 미혼자와 기혼자 모두 경제적 행복지수가 상승했으며, 미혼자와 기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 격차는 줄어들었음

- 이번 조사에서도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기혼자보다 높았음
  -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2.7p 상승하여 46.0으로 가장 높았고, 기혼자도 3.7p 상승하여 43.5를 기록함. 이에 따라, 미혼자와 기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 격차는 6개월 전의 3.5p에서 2.5p로 소폭 줄어들었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혼/사별'의 경우 경제적 행복지수가 오히려 하락하면서 '미혼자' 및 '기혼자'와의 격차가 더 벌어짐
  - 한편, '이혼/사별'의 경우 전기대비 -2.7p 하락하여, '미혼자' 및 '기혼자'와의 경제적 행복지수 격차가 더 벌어졌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혼/사별' 그룹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더 떨어짐을 알 수 있음

<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

	기혼자	미혼자	이혼/사별 등
경제적 안정	53.0	56.2	31.3
경제적 우수	55.2	53.5	38.3
경제적 발전	45.7	60.2	23.9
경제적 평등	24.0	26.3	24.0
경제적 불안	31.6	35.1	32.6
전반적 행복감	44.8	45.8	33.7
경제적 행복지수	43.5 (3.7)	46.0 (2.7)	31.8 (-2.7)

주: 괄호 ( ) 안의 숫자는 전기대비 증감





## 2. 경제현안 관련 조사 결과

○ 우리 국민의 87.1%는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지만, 1년전(2013년 6월)의 91.1%에 비해서는 4.0%p 줄어든 수치임

- 귀하께서는 경기 회복을 체감하고 계십니까?

- 2014년 6월 현재 우리 국민의 87.1%는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단지 12.9%만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
-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직업별로, 학력별로, 성별로, 특별한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별로 '서울'(94.7%), '경기'(94.7%), '전북'(93.1%), '전남'(92.1)에서 경기회복을 체감 못한다는 응답이 평균(87.1%) 이상이었음

- 하지만 응답자 중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중은 2013년 6월 조사 대비 4.0%p 줄어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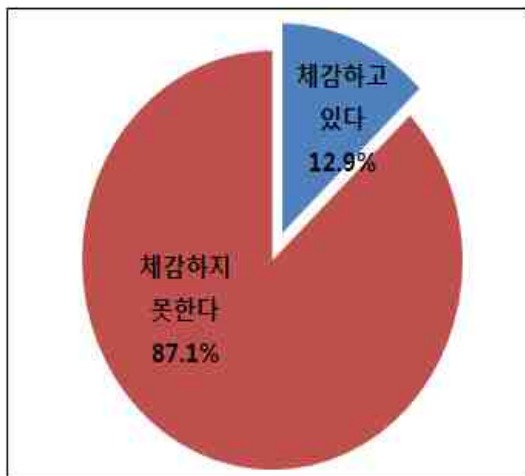
- 2013년 6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1%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였음

○ 일자리 불안과 가계빚 증가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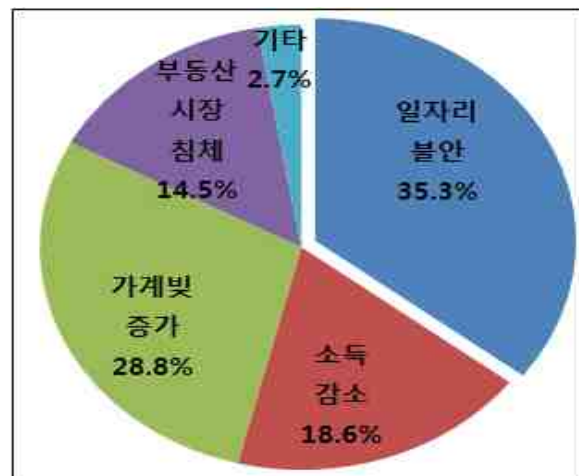
-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은?

- 일자리 불안(35.3%)이 경기 회복감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음
- 가계빚 증가(28.8%)가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소득 감소(18.6%), 부동산시장 침체(14.5%)도 우리 국민들의 경기 회복감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경기 회복의 체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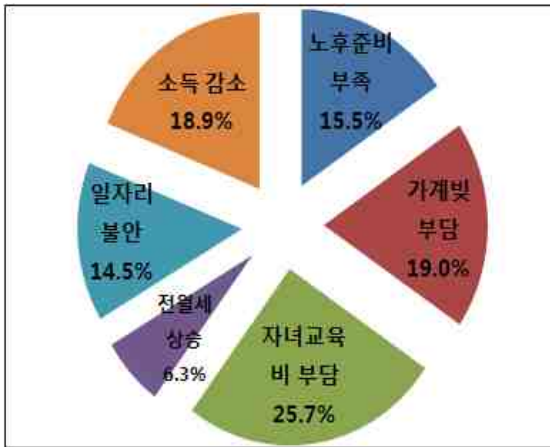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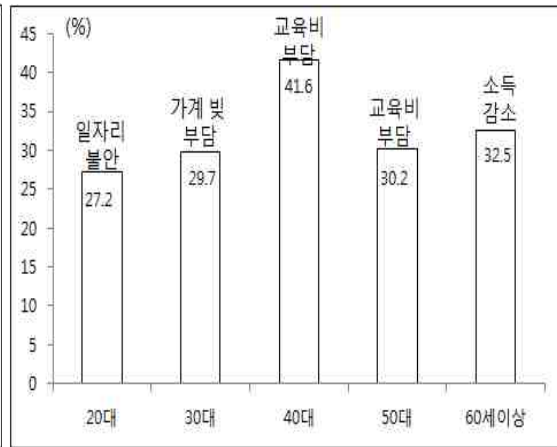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은 자녀교육비 부담과 가계 빚 부담, 소득 감소 등으로 소비를 늘릴 여력이 많지 않음

- 귀하 가구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 전체 응답자의 25.1%가 '자녀 교육비 부담'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고 답하였음. 이어서, '가계 빚 부담'은 18.6%, '소득 감소'는 18.5%였음
  - '노후준비 부족' 15.1%, '일자리 불안' 14.2%, '전월세 상승' 6.2%로 조사됨
- 20대는 '일자리 불안', 30대는 '가계 빚 부담', 40대와 50대는 '자녀 교육비 부담', 60대 이상은 '소득감소'와 '노후준비 부족'을 주된 요인으로 꼽음

<소비 위축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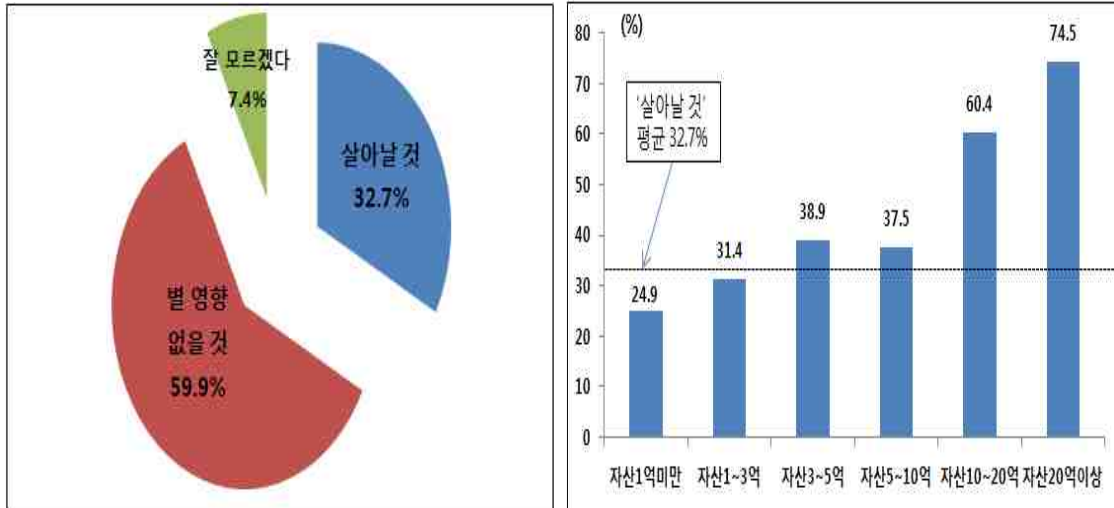
<연령별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



○ LTV, DTI 등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2.7%로서 낮은 편이었음

- LTV, DTI 등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집 살 돈의 마련을 쉽게 해주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 전체(1001명)의 32.7%는 '살아날 것이다', 60.0%는 '별 영향 없을 것이다', 7.4%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여, LTV와 DTI 등 대출 관련 규제의 개선이 '주택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지 않았음
  - '살아날 것이다'라는 긍정적 답변(32.7%)은 '자영업자'(44.0%)와 소득 '1억원 이상'(71.8%), 자산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60.4%), 자산 '20억원 이상'(74.5%)에서 높게 나타남

< LTV, DTI 등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이 살아날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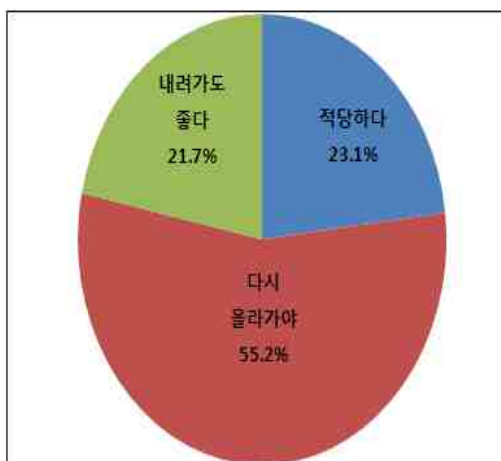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이 1,020원 정도까지 하락했는데, 현재의 환율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23.1%에 불과했고,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응답이 55.2%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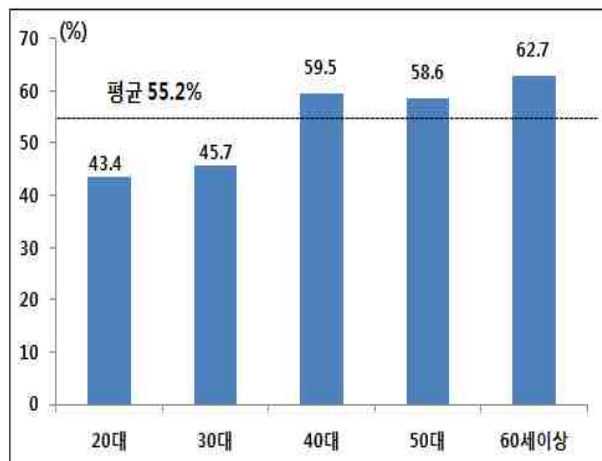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이 1,020원 정도까지 떨어져 '수출 우려'의 목소리와 '물가 안정'의 목소리가 공존하는데, 귀하는 현재 환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 전체 응답자(992명)의 55.2%는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3.1%는 '적당하다', 21.7%는 '환율이 내려가도 무방하다'고 응답
- 나이가 많아질수록 '환율이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응답률이 높아짐

<현재 환율이 적당한가?>



< '환율 올라가야 한다' 는 응답률 >





○ 새 경제팀이 가장 중점을 뒀야 하는 과제는 '내수 활성화'(33.1%)였으며, '소득 분배'(29.3%)라는 응답도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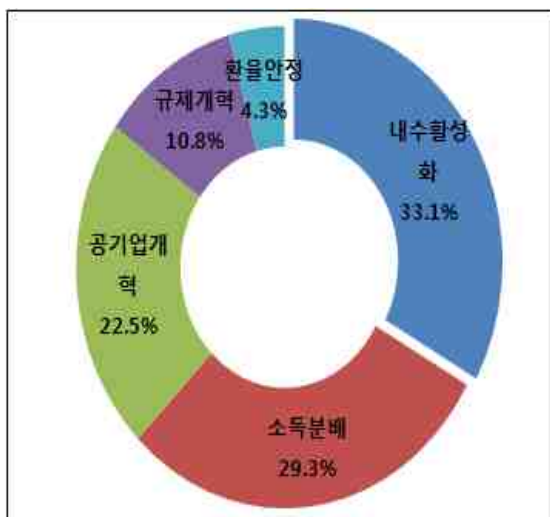
-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경제팀이 가장 중점을 뒀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 전체 응답자(1002명)의 33.1%는 '내수 활성화'라고 응답했으며, 29.3%는 '소득 분배', 22.5%는 '공기업 개혁'이라고 응답
- 반면, '규제 개혁'(10.8%)에 대한 응답률은 높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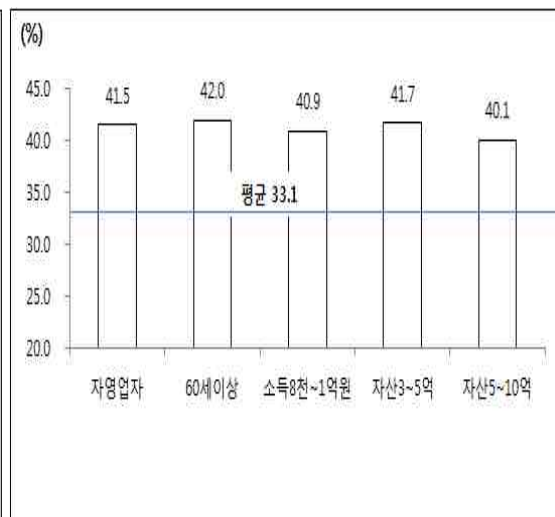
- '내수 활성화'(33.1%)라는 응답이 높은 그룹은 '자영업자'(41.5%)와 '60세 이상 고령자'(42.0%)였으며, 소득이나 자산이 비교적 많은 그룹이었음

- 직업별로 보면, 직장인의 경우 31.8%는 '소득 분배', 29.4%는 '내수 활성화'라고 응답하여 양쪽으로 의견이 나뉘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도 34.9%는 '소득 분배', 26.2%는 '내수 활성화'라고 응답하여 소득 분배 쪽 응답이 더 많았음
- '소득 4천만원 미만'의 중저 소득층에서 '소득 분배'를 원하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산 1억원 미만'의 계층에서도 '소득 분배'( 38.6%) 쪽을 지지하는 응답률이 높았음
- 반면, 고소득층이나 자산이 많은 계층에서는 '내수 활성화' 쪽을 지지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제2기 경제팀의 중점 과제>



< '내수 활성화' 응답 높은 그룹 >



### 3. 시사점

-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던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하락하여 직장인과의 격차가 0.4p로 좁혀짐
  - 2014년 6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이상 학력의 고소득·미혼의 30대로 전문직 또는 공무원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추정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의 과거 트렌드가 크게 흔들림
    - 여전히 과거의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하락하고, 직장인들의 경제적 행복감은 상승하여 둘 간의 격차가 0.4p로 좁혀짐
    - 이 같은 현상은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논란과 그로 인한 ‘사기 저하’의 여파로 공무원들의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해석됨
  - 한편,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60대 이상 고령 남성으로서 자산과 소득이 낮은 은퇴자**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의 행복지수가 항상 낮았으며, 소득·자산·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도 낮았음
- 2014년 하반기에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 첫째, 우리 국민의 87.1%가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불안과 가계빚 증가를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은 만큼, **적극적 일자리 매칭 서비스와 가계빚 구조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실업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직을 원하는 비경제활동인구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일자리 매칭과 관리 서비스**’를 강화
    - 또한, 채무 상환여력에 맞춰서 가계빚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에 대한 컨설팅과 신용등급 관리를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 둘째, '자녀교육비 부담'이 소비 회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의 필요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가구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서 '자녀교육비 부담'이 첫 번째로 꼽혔으므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아울러, '소득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셋째,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노후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이 인상되는 등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크므로 지속적인 고령자 일자리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작	성	:	김 동 열	정책연구실장	(2072-6213, dykim@hri.co.kr)
			홍 유 림	전문 연구원	(2072-6243, ylhong@hri.co.kr)

<별첨 1>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14년 6월 14일 ~ 2014년 6월 20일(7일간)
- 조사 방식 : 전화설문 조사
- 조사 대상 :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2명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
- 오차 범위 : 95% 신뢰 수준에서 ±3.1%

○ 응답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별					결혼유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기혼	미혼	이혼/사별
명	484	518	101	212	233	280	176	752	212	38
%	48.3	51.7	10.1	21.1	23.3	28.0	17.6	75.1	21.2	3.8

구분	직업별						소득수준별					
	직장인	자영업	주부	전문직	공무원	무직/기타	2천 미만 만원	2천~4천 만원 미만	4천~6천 만원 미만	6천~8천 만원 미만	8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명	430	193	204	5	82	86	345	364	160	69	37	20
%	43.0	19.3	20.4	0.5	8.2	8.6	34.7	36.5	16.1	7.0	3.7	2.0

구분	자산규모별						학력별			
	1억 미만	1억~3억	3억~5억	5억~10억	10~20억	20억 이상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명	348	366	140	92	29	14	86	272	582	62
%	35.2	37.1	14.2	9.3	2.9	1.4	8.6	27.1	58.1	6.2

구분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명	74	62	61	64	62	62	63	62	62	62	63	62	62	62	62	63
%	7.3	6.2	6.1	6.3	6.2	6.2	6.3	6.2	6.2	6.2	6.3	6.2	6.2	6.2	6.2	6.3

## <별첨 2> 경제적 행복지수 소개

### ○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 경제적 행복지수 작성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나라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

###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

### <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 >

		이론 및 근거	내용
①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②	경제적 우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③	경제적 발전 지수	Da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④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⑤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

- 경제적 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이루어짐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 경제적 불안은 다른 4개 하위지수와 반대로 계산. 따라서 값이 높을수록 불안감은 낮아짐을 의미함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냄
  -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5} + \textcircled{6}}{2}$$

○ (경제적 행복 예측)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의 차에 100을 더하여, 10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가 60% 이고 ‘아니오’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문문항

구분		질문	답변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①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그렇다 (2)반반이다 (3)아니다
	② 경제적 우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③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④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⑥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경제적 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1)예 (2)아니오	

HRI 경제 통계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2.3	2.1	2.7	3.4	3.7	3.0	3.9	3.8	
	민간소비(%)	1.9	1.7	2.1	2.1	2.2	2.0	2.6	2.7	
	건설투자(%)	-3.9	1.9	9.8	8.8	5.4	6.7	4.1	2.5	
	설비투자(%)	0.1	-12.7	-3.9	1.5	10.9	-1.5	8.0	6.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	508	105	208	238	248	799	151	490	
	통관기준	무역수지(억 \$)	283	56	144	108	133	441	59	370
		수출(억 \$)	5,479	1,353	1,412	1,368	1,464	5,596	1,383	6,067
	증감률(%)	(-1.3)	(0.3)	(0.7)	(2.8)	(4.7)	(2.1)	(2.2)	(8.4)	
	수입(억 \$)	5,196	1,297	1,268	1,260	1,331	5,156	1,324	5,697	
	증감률(%)	(-0.9)	(-2.9)	(-2.8)	(0.3)	(2.5)	(-0.8)	(2.1)	(10.5)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1.6	1.2	1.4	1.1	1.3	1.1	2.4	
실업률(%)		3.2	3.6	3.1	3.0	2.8	3.1	4.0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69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